

日 '아미타삼존도' 사건 계기로 본 해외문화재 환수문제

의지도 전문성도 낮은 수준

가쿠린지 절도 고려불화, '선의 취득' '돌려줘야' 갈피 못잡아

20만점 이상 해외산재... 인력·기관·연구 활성화 시급

국내 절도범이 일본 효고(兵庫)현 가쿠린지(鶴林寺)에서 훔쳐 반입한 고려불화 아미타삼존도의 반환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병의 '선의취득' 조항을 들어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절도범이 반입한 아미타삼존도

현존하는 고려불화는 130여점. 대부분이 일본에 있으며 한국에는 10여점만이 남아있다. 국보 제218호 아미타삼존도(리움박물관 소장), 보물 제1048호 지장시왕도(호림박물관 소장) 등이 대표적이다. 고려불화는 정교하고 치밀한 묘사, 완성도 높은 구도와 장엄한 분위기로 세계적인 미술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1991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는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한 점이 176만 달러에 팔렸을 정도. 절도범이 반입한 고려불화 아미타삼존도 역시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수작이다.

일본 측은 도난당한 아미타삼존도를 되찾아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월 10일 가쿠린지의 특사로 정광권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한 데 이어, 시게마츠 스님(대흥방 주지)이 천태종 특사 자격으로 11월 25일 방한해 도난사건에 대한 수사 진척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가쿠린지와 한국과의 역사적 친밀성을 강조하며 아미타삼존도가 약탈문화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등 반환 불가 여론을 삭

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가쿠린지 측은 아미타삼존도가 1477년과 1700년, 1938년 등 3차례에 걸쳐 수리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임진왜란(1592년) 훨씬 이전에 우호적으로 도래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아미타삼존도는 국내 반입 후 4~5차례 주인이 바뀐 끝에, 최종 구매자가 대구 어느 사찰에 기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기증받은 사찰은 도난당했다고 주장,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이홍훈 부장검사는 "불화를 보관중인 사람이 정상물품으로 알고 있었다면 '선의취득'의 원칙상 소유권이 인정된다"면서도 "법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협약(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은 "불법적으로 이전된 문화재의 경우 회수 및 반환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요청국은 선의의 매수인이나 문화재의 권리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리만으로 사건을 봐선 안 된다. 지지도 있다. 고려불화 권위자인 동국대 정우택 교수는 "선의의 취득 규정만을 적용해 돌려주지 않는다면 해외소재자가 앞으로 문화재 공개를 기피해 연구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단일 문화재 교류가 불가능해짐은 물론,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를 되찾아 오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검찰이 문화재청, 박물관 등

관련 기관과 불화 처리 방안을 의논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사안이 더욱 중요한 까닭은 일본이 한국 문화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이 공식 확인한 일본 소재 문화재만도 3만4천여 점으로, 1만7천여 점의 미국, 7천여 점의 영국보다 훨씬 많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약탈해간 것으로 앞으로 환수돼야 할 문화재이므로 한·일간 문화재 분쟁은 잦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손에 들어온 문화재'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버리기보다는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문화재 환수 어떻게 되고 있나

해외에 있는 문화재의 수량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은 7만4천여 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박물관(미술관)에 전시된 것만 계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장고에 방치되었거나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들은 누락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해외에 있는 문화재가 20만 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재를 돌려받는 방법은 기증, 구매 등이 있는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환수된 우리 문화재는 5천여 점에 불과하다. 1994년 9월 김영삼 대통령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사이에 '고속철도'를 계기로의 규장각 고문서 반환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10년이 지나고 고속철도가 달리



절도범이 반입한 '아미타삼존도'. 반환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고 있는 지금까지도 반환은 커녕 고문서 반환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것만 봐도 문화재 반환이 녹록하지 않을 일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문화재 환수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부서는 외교통상부.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문화재 분포 실태와 문화재 반환을 위한 외교 협상사례 분석 등을 담은 <잃어버린 우리 문화재를 찾아>라는 책을 펴낸 문화관광부 문화비전추진연구단의 조부근 과장은 "문화재 환수 협상은 고난도의 게임인데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전문인력 양성도 전문 기관(부서) 신설 그리고 연구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일제 때 일본은 경찰을 동원해 문화재를 조직적으로 반출했다"며 "1천400여점만을 반환키로 한 1965년 한일협정은 분명 불평등 협정인 만큼 바로잡아야한다"며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조 과장을 강조했다.

박익순·이은비 기자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55>

지식과 상(相)

종교는 몇 천 년의 역사를 가진다. 반면 근대 생명과학의 역사는 수백 년도 채 되지 못한다. 더욱이 물리나 화학보다 단순한 서술식 학문인 생물학의 역사는 몇 십 년밖에 안 된다. 그나마도 왓슨과 클릭에 의해서 기본적인 핵산 구조가 밝혀짐으로써 생겨난 분자생물학의 덕분이다. 어쨌든 과학 기술의 발전에 의한 지식의 축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그 영역의 확대 역시 눈부신 것은 사실이다.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무렵 그 당시 생물학적 지식에 있어서 독일에서는 우생학이란 것이 침착과 학이었다. 지금 되돌아보면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란 좋은 자질을 지닌 부모로부터 나온다는 식의 지극히 간

사람은 생각하는 주체로서 스스로 의미(相)를 부여하는 동물이다. 만들어진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재생산하면서 연쇄적으로 퍼져 나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이 부여한 의미의 의미도 모른 채 그것에 휩쓸리어 그 안에 갇혀 스스로 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생명체는 주위 환경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내부 세계(internal images)를 지닌 사상(四相)을 형성하고, 외부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는 그러한 자신의 내부 세계를 통과하여 여과된 형태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또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나 과학적 지식이란 것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요즘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

사람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동물 정보·지식 시대 따라 변하는 게 당연

단한 당시의 집단 유전학적 지식에 의거한 관점이었다.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열등한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제거하거나 출산을 막아야 한다는 사고가 대두됐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견해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잘 연결되면서 히틀러 정권은 그 시대에 잘 나가는 과학자의 견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인종 소탕을 시도하기에 이른다.

한편 상대성이론을 발표하여 물리학계의 천재로 인정된 아인슈타인에 게 당시 들어왔던 제안을 지금 살펴보면 참 우스운 것들도 많다. 이스라엘의 대통령 자리까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다시 되돌아보게 한다. 천재 학자라고 정치를 잘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는 왜 그러한 이야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의가 뜨거운 생명유니나 혹은 개인의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지닌 이러한 속성에 대하여 심사숙고 없이 그저 표면적으로 보고 들리는 것에만 의거함으로써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웠던 과거의 모습을 또 다시 연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되돌아보게 된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생명과학의 지식이 변화한다. 변화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생명과학이라하면 지금의 지식 체계의 천재로 인정된 아인슈타인에 게 당시 들어왔던 제안을 지금 살펴보면 참 우스운 것들도 많다. 이스라엘의 대통령 자리까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다시 되돌아보게 한다. 천재 학자라고 정치를 잘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는 왜 그러한 이야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그림 : 문병성

인터뷰

서울불교대학원대학 1호 명예박사 팡리티엔 중국인민대 교수



"중국불교는 인간불교를 지향해요"

"대승불교 두 번째 모국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는 중국은 21세기를 맞아 인간불교로 나아가야 합니다."

12월 1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명예불교학박사학위를 받은 중국인민대학교 팡리티엔(方立天) 교수는 미래의 중국불교는 '인간불교'가 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팡리티엔 교수는 "인간불교란 인간과 현실사회에서 출발한 것으로, 인간의 마음을 불교윤리로서 정화하며 인간의 도덕적 소양을 높이는 것을 본질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전통문화 육성 차원에서 불교 중흥책을 펴고 있다"며 "선학 관련 업적이 탁월한 한국과 학술·인적교류 및 성지순례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

호 발전을 도모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연구 계획에 대해 그는 "유불도와 국가의 관계, 중국전통문화 분석, 불교와 당대 사회와의 관계를 밝히는 한편 불교의 범주 개념을 파헤쳐 현대사회에 적용함으로써 현대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uf@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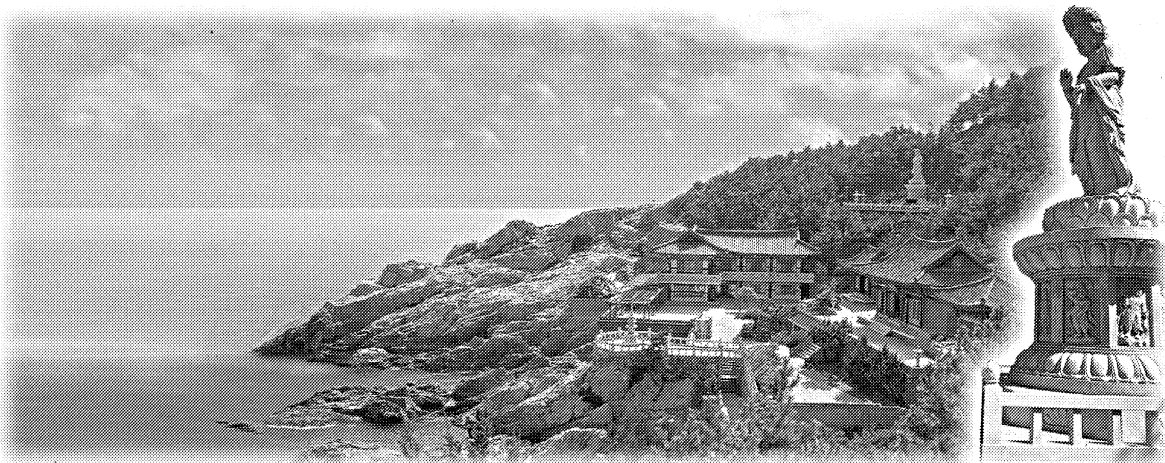
◇팡리티엔교수는

1933년 저지양성 태생. 중국불교사와 중국철학사의 권위자로 꼽힌다. 저서로 <위진남북조불교논총> <불교철학> <중국불교철학의요> 등이 있다.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乙酉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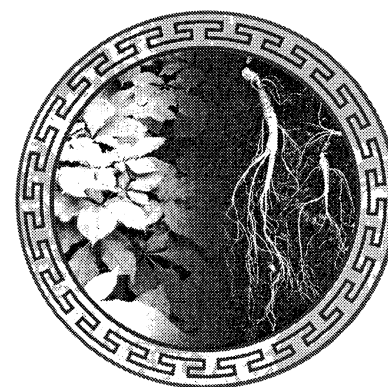
- ◀ 대형 주차장 완비
- ◀ 입장료 무료
- ◀ 점심공양 가능
- ◀ 방생을 배달해 드립니다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 7755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일천분에 한하여 심마니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리보세요.

심마니 토종 오가피

중년의 건강과 활력을 부모님에게는 건강한 노우를 자녀에게는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가족 건강이 행복의 최우선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가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47-9114

